

글_ 김상면 (한국캐나다 대사관 수석장관)

ICT 기업을 위한 최적의 국가, 캐나다



캐 나다는 G7 중 유일하게 7년 연속 재정과 무역수지 쌍둥이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가 살기 좋은 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첨단기술 및 정보통신강국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KPMG는 G7 국가 중 비용경쟁력이 있는 곳을 찾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업들에게 최적의 비즈니스 장소로 캐나다를 추천했다. 캐나다 산업의 95% 이상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고 전자정부운영은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이다. 2003년에는 1300억 캐나다달러의 수익을 ICT 산업에서 창출했으며 425억 달러에 이르는 ICT제품 및 관련 서비스를 수입하였고 25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였다.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에 이르는 ICT 클러스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북미지역에서 가장 큰 클러스터이다.

무선 통신 분야의 선도적 위치

무선통신분야는 캐나다가 자랑하는 또 다른 강점 중 하나다. 캐나다는 1987년 이래 100억 달러 이상을 무선통신망 구축에 투자했다. 캐나다의 다국적 기업인 노텔네트웍스는 세계적인 통신장비 개발기업이며, RIM(Research In Motion)은 무선통신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로서 블랙베리(BlackBerry)라는 무선 이메일 솔루션 제공업체로 유명하다. 캐나다의 무선통신장비 산업은 130여 개의 장비 제조업체와 300여 개에 이르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들로 구성되며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11.6%에 이르는 성장을 이루었으며 생산량의 75%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2003말 현재 캐나다 인구의 42%가 넘는 1300만 명 이상이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였으며, 4대 전국망 사업자 모두 2.5세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3세대 네트워크 및 서비스는 현재 개발 및 구축 중이다.

경쟁력 있는 사업 환경

ICT 관련기업들이 캐나다를 사업하기에 우수한 장소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지난 10년 간 경제의 기초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신중하고 일관된 정책적 노력으로 기술혁신을 배양하고 경쟁적인 사업의 번영을 가능케 하는 환경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KPMG의 2002년도 Competitive Alternatives (경쟁력 있는 대안) 보고서에 의하면 캐나다는 G7국가 중 사업비용이 가장 낮은 곳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노동력, 세금, 전기·수도 등의 비용을 포함하는 27개 부문에서 캐나다가 미국에 비해 14.5%의 비용 이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캐나다는 유리한 연구개발 관련 세제를 제공하는데, 캐나다의 결합된 연방 및 주 세제는 연구개발 비용 100달러에 대한 세후 비용을 44달러까지 낮추어 준다. 또 자본설비, 간접경비, 연구개발 과정의 비용, 임금 및 재료비 등을 적절한 연구개발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해준다. 또한,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자본세를 포함하는 사업소득세가 더욱 낮추어져 2005년에는 35.7%로 미국의 평균치인 40%와 비교할 때 4.3% 이상 낮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다른 이점은 미국시장과의 지정학적 위치로 캐나다는 미국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다. 2001년도에 양국 교역량이 6780억 달러에 달하여 미국의 전 세계 교역량의 20%를 차지하였다. 1994년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형성된 4억의 인구나 10조달러 이상의 역내 총생산량을 갖는 시장이 탄생하여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였다. 북미 자유무역협정은 관세관을 없앤 것이 아니라, 국경통과 및 인력 이동의 용이, 투자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 제품인증등의 절차들을 제공하기도 한다.

캐나다의 추가 정보는 캐나다 산업성의 Strategis 웹사이트 (<http://strategis.ic.gc.ca>)와 캐나다 국제무역성의 웹사이트 (<http://www.investincanada.gc.ca>)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